제 286 회 제 3 차

서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0 년 11 월 11 일 (수)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3차 회의)

1. 2021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

부 의 안 건

1. 2021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군수제출) ····· 2

○의장 나학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1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

(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나학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건설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체육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언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99쪽 드론조종자 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드론조종자는 업무에 필요하니까 전문성을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는 건 이해가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김아진 의원

그런데 지도조종자도 교관으로 해서 양성을 하고 그것으로 또 프로그램을 해서 드론 그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그 말씀입니다.

○김아진 의원

그럼 공무원이 지도조종자를 따고……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공무원이, 지적정보팀장님께서 교관자격증을 지금, 아직 최종……

○김아진 의원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자격증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사실 본인의 업무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김아진 의원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고 강사로 나가서 인력양성을 한다는 게 이게 맞다고 보세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나 농업기술센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전문강사만 초청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공무원이 팀장님이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일 많이 없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일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라든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기왕에 드론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또 교관자격증 취득해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 자격증반이나 이렇게 드론 강의 프로그램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해서 도맡아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원래 팀장님 업무를 안 하고 지금 이 강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이 업무를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문 기간제를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좋지만 일단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강사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는 그러면 자격증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다 가능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종합운동장에

서 일단…… 별도로 교육장소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현재는 종합운동장에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전에 성실중학교 그 앞에 매트랑 이런 걸 다 마련을 해놨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종합운동장도 하고 성실중학교 위치도 두 군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지금 강사도 몇 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일 텐데 시설이 그렇게 나눠져서야 되겠어요? 차라리 성실중학교든 종합운동장이든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업무에 치중해야 될 분이 이런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것까지 맡아서 한다는 게 맞지가 않다고 보여지니까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언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남용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장항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배수갑문 앞에 용수가 담수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조남용

지금 갑문을 증설하면서요, 지금 펌프장 의원님 말씀하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 증설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해소를 할 건지, 아니면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건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담수되고 있는 그 시설은 개선이 안 돼요, 혹시? 갑문 내 쪽에.

○건설과장 조남용

그 부분을 증설을 하면 우리가 우수 시에 장마 시에 이런 때에 배제효과를 갑문증설로 현재 보고 있고요.

○김경제 의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항지구는 여기만 해결되면 쉽게 얘기해서 침수지역이 100% 해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남용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감독도 중요하지만 주변 공사현장에 환경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난장판 같아요, 난장판.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상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정리가 돼도 되는데 너무 난잡하고, 또 특히 장항 4차선 확장공사를 보면 사업 초기 때부터 주민들한테 엄청 불만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불편이라는 단어는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싫어해요. 불만이에요, 불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초창기 방지턱이 많이 있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보다 지금이 더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금방 개선할 것 같더니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는 건지 흉내를 내는 건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포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장은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성주리 구간 같은 데 보면 단차가 10cm 이상 나요. 겨울 되면 거기가 또 응달쪽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사실은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의 문제예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거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보면 사업초기 때 쓰던 여러 가지 구조물들도 그냥 방치해서 너무 보기가 흉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갓길도 중요하지만 그 방지턱 우리 관내에서 신고 몇 군데나 들어와요?

○건설과장 조남용

계속 그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계속 심의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민원인들 얘기는 경찰서로 하면 군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경찰서 심의 해야 한다고 그러고. 경찰서에서는 군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고 그러고.

○건설과장 조남용

방지턱하고 횡단보도, 보도, 정지선 이런 부분이 교통안전심의 대상이거든요.

○강신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군하고 경찰서 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전부 다 해줄 수 있게끔, 그 플라스틱인가 뭔가 그걸 하지 말고 아스콘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그걸 해달라고 하는 데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저희가 민원요구가 되면 안건으로 다 올려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그리고 읍·면으로 받으면 서면 같은 데만 해도 한 10군데는 돼요, 해 달라는 데가. 시초, 문산도 몇 군데가 있고.

○건설과장 조남용

조건이 다 수용은 못하고요.

○강신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읍·면으로 해서 그걸 받아서 또 진짜 이건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데 봐서 그걸 한번 집계를 내서 예를 들어 10건이면 10건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가능한가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남용

저희가 사전에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한번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258페이지 로컬푸드 유통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문제제기와 관련된 배경에 대한 얘기들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생산농가를 조직하는 문제가 더 급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군정질문을 준비하다 그냥 말았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급식에 제공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원활하게 생산되지 않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광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다품목 소량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생산농가들이 다품목 소량생산을 하기 위한 체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통시스템만 손봐서는 사실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작년에 사실은 푸드플랜이라든지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추진을 저희과에서 제시한바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 최근에 마지막으로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용역보고를 끝나고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일정부분 받을 수 있고요. 그 사업에 맞춰서 끝나면 내년도부터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서 원특작물을 집중적으로 제시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저도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보고해 주신 ICT융합 원예산업 기반조성이나 이런 연계된 사업들을 통해서 해당 품목들의 소비량과 생산량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계산돼서 계획생산 돼야 그분들도 어쨌거나 생산단가에 맞는 적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들이 생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은 특정한 품목 외에는 거의 생산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지역적 여건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동준 의원

지역적 조건 때문에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유인데 어쨌거나 원예산업 기반을 좀 더 폭넓게 조성하고 거기에 소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산 조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아졌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 굉장히 미흡했고 그래서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사실 당초 취지대로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와 연계된 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조직을 다품목 소량생산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 조동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에서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전체적으로 쌀을 제외하고 나면 4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산품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축산품 같은 경우도……

○김경제 의원

서천군산이 40% 정도 돼요? 쌀을 제외하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그리고 지금 가정 간편식 식품산업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통합마케팅 육성을 통해서 보면 우리 관내 농협에서 지금 로컬푸드 사업들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판매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경제 의원

실질적으로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박명수

판매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경제 의원

미미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 조동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작에 대한 지원이 없고 아직 기술이 부족하고 그만한 능력이 지금 배양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판매를 하겠다고 판매장을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지역의 특성상 다 조금씩 주변에 재배를 해서 자급자족하는 구조라 그게 더 어려움이 있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제 이렇게 어떤 유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에 대한 고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 지역에 가보면 밭두렁마다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다 식재하는 농산물을 날짜를 틀리게 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절대 통 밭에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도록 유도를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조금만 과잉생산 되면 다 갈아엎어야 되고 또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판매처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경제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큼 생산이 됐을 때 유통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팔 물건이 없는데 유통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관내 농협들은 다 짜맞춰서 '로컬푸드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성과가 없어요.

얼마 전에 모 농협에서 사고 난 것도 그런 차

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정과에서 저는 최소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나 지금 판매하고 소비가 되는지 이 조사부터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통도 걱정해야 되고 판매도 걱정해야 되고 하지만 생산에 좀 다양성을 갖추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아까 민원봉사과 질문 중에서 우리 김아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드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도 드론을 보급하면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말도 하기 싫어요. 기술센터, 농정과, 민원실……

자, '농정과에서는 드론만 보급할 거냐, 기술센터에서는 교육만 실시할 거냐?' 이거 분리를 왜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찔끔 찔끔 찔끔 해요. 민원실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게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두서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과에서는 드론관련 교육은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본 교육은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지 저희과에서……

○김경제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좀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농정과는 드론이나 헬기를 보호만 할 것인지,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내년 예산 심의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쪽에 손을 들겠어요, 이거? 어디 예산을 손 들어줘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나는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일부분 저희가 교육을……

○김경제 의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어디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그 업무를 확실히 분장을 해야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예산 받아서 기술센터에다 예를 들어서 '교육 실시해주십시오' 하면 실질적으로 좋아합니까?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신데 이건 분명히 갈라야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3개 과가 만나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경제 의원

왜 그러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민원실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기술센터에서 받는 건지…… 농정과 가면 거기 가니까 기술센터로 교육 받으러 가라고 하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주민들이 한 번 와도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250쪽 드론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 그 기존에 계속 드론도 공급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아진 의원

그래서 자격증 취득한 그 분들이 병해충 방제단에 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농정과장 박명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병해충 방제단이 우리군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농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 드론도 공급해주고 자격증 취득도 해주게 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서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된다는 취지였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데 올해까지도 보면은 용역을 좀 주게 됐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아진 의원

앞으로는 계획하셨던 대로 취득자가 늘어나고 전문가가 늘어날수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아진 의원

그 다음에 드론이 많아지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안전교육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김경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센터랑…… 민원봉사과는 어쨌든 교육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상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편식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고살메 죽 가공공장에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가공공장에서는 판매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도 간편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겠다 했는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특히 농정과에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판로를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과 식품 유통업체랑 협업을 구축을 하겠다 하셨는데 농협에 상품을 그냥 진열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쉽게 팔려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쪽에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관내에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반가공이라 하면 식품까지는 아니더라도 파를 절단해서 한다든지 이런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 제법 큰 규모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생산부터 판매, 유통까지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산지유통센터 지원할 때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공동선별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공동선별을 하는 목적이 균일한 고품질 상품을 판매를 하고 고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생산자들이 생산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품질로 가야 공동선별의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하향돼서 그냥

비슷한 그 평준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공동선별을 함으로써 장점보다는 피해를 보니까. 이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판매를 할 때.

선별할 때 어렵더라도 쉬운 쪽으로 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고품질로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든지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농림부에서 하는 자원화사업이 있고요. 환경부서에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축협 쪽에서는 환경부서와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저희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라든가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강신두 의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잘 느끼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지금 하루에 액비가 몇 톤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300여 톤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하루에 300톤 이상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아직도 구상한다는 것은 서천군 망신이에요. 지금 돼지 사육하고 계신 분들이 양돈을 지금 액비 때문에 다 접어야 될 입장인데 우리군에서는 막무가내, 무슨 농림식품부냐 환경부냐 민자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또 우리군에서 어떻게 해야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파악을 않고 '어떤 사업으로 어떤 업체에서 하면 좋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면 안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그렇진 않고요. 분석은 끝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자발적이라기보다도 그동안 법인이라든가 단체로부터 어떤 신청이 있었는데 장소의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장소도 서면이면 서면, 비인이면 비인, 서천이면 서천 어디 지역을 해서 어느 마을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겁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그렇진 않고요.

○강신두 의원

실제 어디 지역에 해야 된다 하면 이것을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 서천군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보령이나 홍성 같은 데 봐요. 서천군 몇 배 아닙니까? 몇 개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농림식품부라든가 환경부 이런 걸 지금 계산한다면 앞으로도 3년, 4년이 걸려요. 이것을 3년, 4년 말로만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농가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또 차 갖다 대놓기만 하고. 차 갖다 대놓고 이런 것이 냄새 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신고 들어가면 차 갖다 딱 받혀놓고 일주일, 한 달 놔두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왜 합니까?

공동자원화 이게 빨리만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환경과에 신고도 안 들어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강신두 의원

추진하는 것을 하루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년, 3년 걸릴 것도 없이 금년 말에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체를 붙잡아도. 하여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가축방역 거점소독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마서면 도삼리 김인전 공원 주차장 부지에 지금 가설건축물을 한다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우리가 이쪽에 지금 이 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하굿둑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거는 임시 시설입니다. 농어촌공사 협의과정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항구적인 방역시설이 필요해서 관광축제과와 협의해서 김인전 공원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오는 차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방역에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송내까지 4차선이 추진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공사가 지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김경제 의원

지금 김인전 공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김경제 의원

저는 우리군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차선에서 앞으로 진출입 시켜서 우리가 방역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바로 도로 옆을 우리가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임시시설이 아닌 고정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차선이 송내까지 되게 되면 차량 유도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축산차량들은 GPS나 단말기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거점소독시설에 안 들어오고 운반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제 의원

아니, 물론 그게 더 멀리 있어도 가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하다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겨울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우리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느끼시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거 사업 재검토해서 4차선 바로 옆으로…… 우리가 보면 과적차량을 유도하는 시설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확고하게 돼서 가축 사육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타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 아닌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뭐라고 할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검토하겠고요 하굿둑 주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봤는데 위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자체는 영구시설을 하고요. 관리사만 가설……

○김경제 의원

이게 있어요. 이런 검토를 하면서 좀 안타까워요. 지금 하굿둑 하상주차장에서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것을 반대쪽으로 옮겨서 김인전 공원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김경제 의원

김인전 공원으로 이전하면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군산 쪽으로 올 때는 좌회전해서……

○김경제 의원

어디께요? 지금 축구장이 있고 지금 진흥과에서 지금 사업 중이고 주차장 일부 있는데 어디다 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화장실 옆으로 협의가 돼서요.

○김경제 의원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하굿둑에 지금 이런 시설 그 시설을 축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방역소를 하겠다? 그게 맞아요?

죄송하지만 협의해 준 실과도 문제 있고.

군민 여가캠핑장을 하면서 지금 거기를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마음대로 뛰어 놀 데가 없어서 그게 완공되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다 이런 시설을 넣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검토하겠고요.

○김경제 의원

그리고 요청하신 과장님도 문제지만 사업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협의해준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이것이 하굿둑 주차장 있으니까 가까운 데 찾아서 그냥 하자' 이게 편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얼마든지 장소가 있어요, 그 근방에. 물론 군비가 더 소요가 되겠죠.

이거 검토를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올겨울도 비닐로 해놓고 가설 저렇게 해놓고 근무여건 나쁜데 어떻게 보면 저녁에 가보면 불쌍할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때 좀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그 장소에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새예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저는 지금 제시된 시책 외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림분야 쪽에 임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작목들이 뭐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저희들이 특별히 내세울만한 건 없고요. 표고, 밤, 호두 대부분이 연접 부여나 청양, 공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임산물은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면 지금 임산물은 그렇고. 예를 들면 나무를 식재해서 파시는 분들도 조경이나 이런 쪽에도 있으신가요? 그것도 산림 임업에 해당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조경 쪽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겠고요. 저희들이 양묘협회에 소속해 있는 양묘장이 서천군에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어쨌거나 임업분야에 우리 서천군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그런 편입니다.

○조동준 의원

면적뿐만 아니고 생산액이나 소득이나 농가수나 그렇겠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대부분 다른 데에 보면 적은 편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 이유가 뭔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일단 임야면적이 적고요. 저희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특목하는 작물이 많지 않다. 다만, 표고라든가 밤, 뭐 면적단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체작목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요. 적은 편은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 임야의 전체 면적을 통해서 활성화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쭉 오면서 우리 산림축산 분야에서 임업과 관련 돼서 역점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키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치유의 숲도 저희들이 한 거고요. 장항송림욕장.

○조동준 의원

그건 시설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농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아니요, 농림사업 같은 사업도 저희들이 부여, 공주, 청양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어떤 부분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밤이라든가 작업로, 운반로, 수확망 여러 가지 농림사업 자체도 충남도에 15개 시군 중에 예산지원 대비 따지고 보면 한 4~5등 정도는 갑니다.

○조동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미한 건 산림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그렇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미미한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적었다는 건 아닙니다.

○조동준 의원

충분한 정책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충분하다고는 생각은……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결국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미한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이나 대체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급할 수 있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과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산림축산과 시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관련해서 거리제한 조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산림축산과에서는 이 축사관련된 거리제한이 강화됨과 관련

해서 과장님 매번 말씀하셨지만 축산담당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축산에 대한 보호를 떠나서 창과 방패인데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설명도 드렸는데 전국적인 대세고 방향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산업을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해야 될 산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저런 위기들, 그리고 축산분야도 사실 아까 얘기한 임업분야처럼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그런 편입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산림축산과의 임업과 축산업이 도내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담당과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대급부가 있지만, 환경보호과나 이런 문제들이 반대급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산림축산분야, 임업분야의 소득이나 생산의 어떤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임업분야나 산림분야의 소득은 다른 분야에서 어떤 시군이든 미약하고요. 또 하나……

○조동준 의원

아니, 제 얘기는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나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숫자나 순위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조동준 의원

그럼 뭐로 평가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저희들이 추진하는 우리 사업의 효과성, 성과성을 볼 때 임도만 해도 충남 내에서 저희들이 km당 제일 긴 길이를 갖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다만, 농가의 소득 여러 가지가 미비할지 몰라도 다른 정책적인 부분은……

○조동준 의원

저는 관리업무를 떠나서 농가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을 얘기 하는 거예요, 업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소득으로 따지면 몇 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산림분야가 소득이 적고 면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생산 소득량에 비하면 자체 지역별로 적은 건 사실인데 도내에서 서천군이 임업 생산량이 소득액이 충분히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소득분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조동준 의원

저는 산림 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임업과 축산업 농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관리하는 업무들은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걸로 보고. 축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그 고민 속에서 이런저런 시책들이 나오는데 축산업도 좀 우리군에 맞게, 뭐 절대적 양을 늘리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서천군의 축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서천군에 맞는 축산업 활성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큰 전략에 있어서 제가 우리 축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전략이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들었어요. 지금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주문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산림축산과 업무의 주축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규정내리긴 어렵지만 임업과 축산업에 대한 활성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이나 지원책들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제에. 당장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좀 의외인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뭐 시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산림축산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축산업이나 임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다지 많은 역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완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충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유해폐기물(농약)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의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읍·면 4개소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유사한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병 수거나 이런 거 때문에 마을회관 주변에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마을회관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반겼지만 지금은 그걸 치워줬으면 해요.

이게 뭐냐면 사업이 너무 단조롭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진짜 주민들이 수거가 확실히 잘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갖다 모집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읍·면에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현장에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면 단지 주변에. 그걸 과연 그것을 다 그렇게 들고 면사무소까지 읍사무소까지 가져올까요?

왜 그러냐면 정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실효성을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들녘에 진짜 어떻게 보면 단지라든가 주변에 설치를 해서 자율적으로 좀

그때그때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읍·면사무소 들고와서…… 그 정도 성의 가진다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말거냐 보다도 오히려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읍·면사무소에도 설치도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에다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는 게 옳다고 판단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김경제 의원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불과 화목보일러를 권장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당초에 우리가 후에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권장하고 또 시범사업을 하고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설치할 때 지원해주고 폐기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사한 사업들도 신중을 기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잘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316쪽에 금강에코센터 건립이요. 지금 김인전 공원……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아닙니다, 김인전 공원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조류생태전시관하고 공중화장실 사이에 있는 이쪽 편에 조류생태전시관 옆쪽에 거기다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전에는 김인전 공원 그쪽에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에, 거기가 여의치 않고 협조사항이 안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김아진 의원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그쪽에다가 놓고 공모를 해 보려고.

○김아진 의원

기본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다음에 320쪽에 판교천 명품십리길 조성사업은 이번에는 국비지원을 안 받고 그냥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금년 말까지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10억 정도가 배려해 주셔서 투입이 됐는데 대부분이 그때 처음에 당초에 자연하천 했다가 이게 도와 협의과정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까지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관상식물 이런 쪽에는 투입이 거의 안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 예쁘게 다듬어볼 계획을 갖고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아진 의원

하천복원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예전에 서천 쪽에 보면 명품생태십리길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김아진 의원

그것과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때는 국비 환경부에서 10억 받아서 우리 군비가 조금만 부담이 됐었는데 이거는 다 군비 100%로 하는 것 같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그래서 이것은 코스모스라든가 구절초 이런 것들 더 심고요. 더 해서 이쪽 친소공간을 더 해서 아름답게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까지 거기에 심어질 것은 이팝나무하고 황금사철, 남천 정도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조로워서 이쪽 아파트 가까운 쪽에 이쪽편에 집중적으로 관상식물을 심어서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천변에 조성을 해서 그 산책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김아진 의원

그렇게 하면 이 모니터링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그렇습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맨 먼저 웰니스 어촌관광 역점 특화 개발 관련해서요. 뉴딜300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지금 송석항하고 유부도를 연결하는 이런저런 기능들을 넣으려고 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송림항하고 유부도를 연결하는.

○조동준 의원

예, 송림항. 그래서 갯벌관련해서 관광과에서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컨텐츠들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나요? 갯벌 위에 달리는 뭐 였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갯벌사이로'라고 해서요. 지금 송림리 댕뫼 쪽에 연결된 그 데크하고 송림하고 연결하는 그런 데크를 부유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동준 의원

데크?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조동준 의원

데크 말고 이동수단.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아, 이동수단은 선박을 통해서 유부도까지……

○조동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박 말고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 갯벌 위를 가는 걸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그런 수단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도 사유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 승인할 때 빠져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동준 의원

원래 없었다고요? 아니면 없어졌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원래 없었습니다.

○조동준 의원

갯벌 위를 보트처럼 가는 기능을 가진 걸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뉴딜300사업으로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조동준 의원

뉴딜300 아닌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조동준 의원

송림항 그 사업에 그게 없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예전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럼 아무튼 이 사업들 중에 지금 갯벌을 활용해서 하는 다른…… 훼손이 가능하거나 저희가 자연유산에 등재해서 이런 것과 연결이 됐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지금 그런 사업은 없고요. 송석항 쪽에 체험을 위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부유식 김양식어장을 체험하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조동준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갈 때 트랙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사유화 우려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럼 일단은 송림하고 유부도 사이에 어떤 갯벌이나 이런 쪽을 이용하는 내용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저희가 역점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훼손되거나 이럴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관광과하고 잘 협력해서 협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유부도를 왕래하는 선박을 건조해서 운항하기로 했었는데 취소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기본계획 승인 시에 선박이 사유화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승인을 취소를 했습니다.

○김경제 의원

언제 취소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왜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

○김경제 의원

유부도 선착장을 왜 개선해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그거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선박 이용을 않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박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경제 의원

주민들이 그 정도의 선착장 확충을 해서 어업

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리고 그거는……

○김경제 의원

됐어요. 송림항에 이런저런 시설개선을 하죠? 확충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유부도까지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선착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김경제 의원

그럼 이 부분도 다 취소가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선박은 운항하도록 그냥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시설은 그냥 들어갑니다.

○김경제 의원

선박이 운항을 않는데 선박을 운항할 걸로 보고 시설을 그럼 하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이게 공유로 선박을 운영을 해야지, 사유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에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공유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제 의원

송림항과 연계해서 유부도에 선박을 건조해서 운항하겠다고 한 것이 몇 년도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계획 세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들은 뉴딜300사업 계획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김경제 의원

그때가 몇 년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경제 의원

2년 정도가 아니고 2년 훨씬 전에 그런 말씀들을 해 오셨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시화된 것이 2년 좀 됐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김경제 의원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의원님들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주민들은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지금 하는 사업은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기본 취지대로는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배가 쉽게 얘기해서 왕래를 안 해도 관계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배는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경제 의원

어떤 배를 운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사유…… 그러니까 지금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김경제 의원

지금 배를 운항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각자 알아서 각자 어선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김경제 의원

엊그제 군정질의 때도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없었어요. 여객선 건조는 취소돼서 그런 대안을 세우겠다든가 이런 안이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질문 내용에 들어 있어요. 확인 해봐요.

아까 오전에도…… 죄송합니다, 과장님들한테 죄송한데 저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말씀드리면 뒤끝이 개운치도 않아요. 과장님들 뒤에다 계셔서.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하려고 해야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버리고 '다른 과에서 하니까 그건 해도 됩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제가 유부도 갔다 온지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때도 가서 좀만 기다려라 하고 왔어요.

지금 송림항과 관련되고 유부도에 관련된 사업은 이 정도 되면 다 중단하고 전면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가장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 사업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선착장 개선이 주민들은 그거 해 봤자 어업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고.

단, 우리 여객선을 운행할 때 그래도 시간타임을 좀 주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김경제 의원

이게 본래의 목적이 다 없어졌어요. 송림항에서 일반 소형어선 타고 유부도까지 가겠어요?

하루 밀물과 썰물 사이에 송림항에서 배가 출항해서 유부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약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하루에 6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제 의원

6시간 해서 유부도에 가서 입항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

○김경제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선외기 타고 가도 2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못 나와요.

이렇게 큰 사업,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 되고 빠지고 사업 중에서 제일,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이 빠졌어요. 그러면 송림항에다 그 건물을 지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도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서류도 주고 싶은 만큼밖에 안 주고. 그럼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산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건조하는 어선이 본래 계획보다 톤수가 작아져도 보고를 해야 돼요.

저는 혹독한 말씀을 드리면 왜 업무보고를 받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가요. 뭐 하러 받나를. 받으면 뭐해 내일 모래 변경되면 말 않는데.

잘 합시다요, 좀.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과하고……

○김경제 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불과 4년이지만 어쨌든 국가의 녹을 먹고 군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앞에 나가서 별 소리를 해도 그게 들어와요? 가슴에 닿아요?

신뢰성이 없는데.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취소가 되면 의원님들이 나서서라도 정치적으로라도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서로 상의하고 그게 없어질 때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송림항에 갯벌이 쌓여서 특허를 내서 설치해서 물을 분사해서 갯벌을 밀어낸다고 그때 당시도 의원님들이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농어촌공사에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해양수산과는 자리 만들어 줬고. 공청회랍시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해도 실패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섬이 유인도가 6~7군데, 8군데 돼서 한 군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시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요즘 해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설치들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지금 11월 4일부터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불법시설물이 한 50% 정도 감은 됐는데 아직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우리수산과에서도 행정대집행이라는 용어들을 요근래 와서 많이 써요. 그런데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전에 앞으로 행정대집행까지 안 가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좀 뭔가 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자, 행정대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불만이 더 쌓여가죠. 또 우리 해양수산과도 그 만큼 인력낭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행정대집행 단계까지 안 가도록 좀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철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체육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군 노인체육회 설립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김아진 의원

체육진흥법이 6월 9일 일부 개정돼서 12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조의 2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설립을 하겠다는 것이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2항도 같이 포함됩니다.

○김아진 의원

네, 2항도. 2항은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시설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김아진 의원

여태까지 노인어르신 건강에 관해서 시책 없었나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시책은 확장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체육회가 생기면 별도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럼 별도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뭐가 있나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현재 저희들로서는 없고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체육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서 법인형태를 갖추고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사항이 있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서천군 체육진흥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다 노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부분을 명시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각 생활 프로그램별로 나가겠죠.

○김아진 의원

진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르신, 노인체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없었던 것은 아닌데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건강교실이라든지 파크골프,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는 기존이랑 똑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체육회가

이전에 전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졌잖아요. 합쳐져서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통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지금 시책으로 생애주기별 체육도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 떼서 다시 지금 추세랑 맞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진흥계획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김아진 의원

그걸 보고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체육회활동이 사실 흡족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게 내년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으시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측은 그렇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측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타 시군도 내년 동향을 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체육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사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는 하시지만 시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행정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걸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일을 보태실 필요가 있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육회를 만들어서 운영비, 인건비 다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차라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서 체육진흥법 개정에서 말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그 시책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낫지, 이 노인체육회를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그것은 저희군만 노인체육회가 설립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이 다 설립될 예정으로 있고요.

○김아진 의원

그렇죠, 예정에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전국 동향을 보고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일을 벌써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설립이 되면 예산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예산지원이 있으면 또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년에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아무튼 시의적절하게 동향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진흥계획도 수립을 하실 계획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급하게 하시지 말고, 정책이라는 게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또 명분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와 명분이 둘 다 맞지가 않는 사업 같아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뭐 노인회에서는 이걸 빨리 좀 추진을 해달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적으로 봐서 행정에서는 그것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판단을 잘 하시고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알았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올해 지금 상당수가 취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거의 전국대회, 도 대회 이상은 코로나가 창궐이 극심해서 다 상반기에 취소를 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대회는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상반기에 한 대회가 전국 역도대회 했었고요. 나머지 대회들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렇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조동준 의원

아마 MBC배는 12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요.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스포츠마케팅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특히 몇 개 종목에 맞춰서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도 짓고 조성하고 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올해 사실, 물론 다른 분야들도 많은 타격이 있었지만,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의 한계점들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체육시설들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도 국민체육센터 옆에도 보조경기장까지 만들어 주는 정도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일들이 또 다시 안 벌어진단 보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대책이나 고민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선제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대처를 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현재 그러니까 종목별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종목들은 역도나 태권도, 육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더 보완 강화해서 갖고 가고요.

그렇지 못한…… 각 지자체 간에 스포츠마케팅에 다 뛰어들다 보니까 종목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우위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거기 맞춰서 우리군이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체육시설물 확충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 확장해서 계속 스포츠마케팅도 하고 군민 건강 생활체육 활성화도 시키고 기존에 있던 공공체육시설물들을 잘 유지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어쨌거나 이 전염병이 또 다른 창궐을 했을 경우에—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그런 환경들 속에서 또 다른 요구들이 지금 되어 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략을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 방식대로 무조건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만 하실 건 아니고 그래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분발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김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노인체육회 설립…… 지금 만약에 설립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형태예요? 저희가 지금 일반 그냥 사단법인 형태인가요? 기존에 체육회하고는 또 다르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사단법인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조동준 의원

대한체육회로 이어지는 그 체육회는 서천군체육회가 유일하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왔거든요.

○조동준 의원

어떻게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법이 개정된 이후에 대한체육회 산하에 노인체육회가 그쪽으로 산하기관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노인체육회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동준 의원

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군에서 기존의 체육회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립에 따른 운영지원'을 우리가 사업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쨌거나 관련법이 만들어졌지만 자구적인 활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게 법으로 된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조동준 의원

설립 운영지원까지를 우리가 사업으로 넣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저희들이 개입하는 부분은 없고요.

○조동준 의원

아니, 사업에 이렇게 넣었으면 개입하는 거지.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여기다 시책구상에 넣은 거고요.

○조동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노인체육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 해주면 되는 건지, 기존에 체육회처럼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치단체가 설립 지원 운영에 대해서 관여, 협력, 협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라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아니죠. 설립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노인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설립을 하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조동준 의원

자,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설립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립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설립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시책사업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겠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간단체를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그 단체에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저희들 생각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고 노인체육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조동준 의원

아무튼 말씀드리면 그런 법률에 의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이 되고 운영됨에 있어서 이 단체에서 우리군에게 이러이런 지원들을 해 달라고 해서 하면 그때 해서 지원 해주면 되는 거지……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그렇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 거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조동준 의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넣어서까지 군정 시책으로 넣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발기인 구성까진 끝났단 말씀이시잖아요. 이 발기인 구성하는 주체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했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벌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15개 시군 대표들이 모여서 발기인대회를 했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조동준 의원

어떤 분들이 대표로 참여하신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전체적으로 제가 모르고요. 우리군도……

○조동준 의원

지금 체육사업소하고는 업무협의를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현재 정식으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한 건 없고요. 우리들이 그런 정보를 체육회를 통해서 입수해서 알아본 바는 열다섯 분 정도가 발기인대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7월달에.

○조동준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걸 주도하시는 분들이 몇몇이 계시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천군 노인체육회 발기인 구성 운영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잘 모르신단 말

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현재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도 발기인 대회 참여했고 정관 작성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식적으로 접촉한바는 없고요.

○조동준 의원

발기인 구성, 운영 이런 절차들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임원 20명, 직원 6명 이렇게 안을 가지고 우리 사업소가 내년에 이렇게 해서 운영 지원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아직 설립 단계니까요.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내용은 그쪽에서 구성안이고 이 안대로 될지 안 될지도 저희들도 몰라요. 설립이 된 이후에는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조동준 의원

그 주체는 지금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시죠, 누구신지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명단을 통해서 저도 받아는 봤어요.

○조동준 의원

누구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체육회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조동준 의원

이 노인체육회 관계자분이 아니고?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조동준 의원

왜 접촉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넣었는데.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우리 체육사업소의 공동모토가 학생, 장애인, 전문 엘리트체육부터 시작해서 폭을 좀 넓히려고 그래요.

○조동준 의원

아무튼 그……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노인체육회가 생긴다고 해서 노인체육에 관한 부분도 담기 위해서 이게 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시책구상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넣었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기인까지 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우리 사업소에서 협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거고.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시군도 논란이 있어요. 체육회와의 관계, 법적인 위치 뭐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김아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접근을 해야 되지 민간단체가 설립된다고 해서 아무리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지만 설립되지도 않은 단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운영지원을 하겠다고 시책구상에 넣는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충남 15개 시군 동향도 파악했고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조동준 의원

정확하게 우리군의 동향도 파악을 하시고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조동준 의원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에 적당하게 적법하게 공개적으로 단체가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돼요. 특정하지 않게.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더 직접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알았습니다.

○조동준 의원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이대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철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과장님,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나학균, 강신두, 김경제, 조동준,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7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부군수	이교식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재무과장	박범수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농정과장	박명수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지역경제과장	노희랑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건설과장	조남용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보건소장	김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대철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정진형
수석전문위원	전종석